

력사에 길이 빛날 대기념비 -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광강도 해산시에 솟아있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명도하신 항일 혁명투쟁의 영광찬란한 로정파 불멸의 염적을 길이 전하는 대기념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사하시었다.

『보천보전투가기는 가장 주요한 의의는 조선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던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싸우면 반드시 민족독립과 해방을 이루어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주제 26(1937)년 6월 4일에 진행된 보천보전투는 일제의 학살장에서 실현한 국내 인민들에게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실상을 안겨주고 일제놈들에게 거기만 정치군사적 대응을 준 역사적인 전투로서 항일 무장 투쟁 역사에서 빛나는 것이다.

이 역사적인 전투를 적극 조직지휘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영적과 항일의 불길 속에서 마련한 우리 당의 및 나는 혁명전통을 형상화하는데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일성同志의 힘을 높여놓게 힘을 더해 투쟁하게 했던 중심에 모시도록 현명하게 이를 주고 일제놈들에게 거기만 정치군사적 대응을 준 역사적인 전투로서 항일 무장 투쟁 역사에서 빛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후 창가들이 그에게 올린 인민영웅 헌정에 대한 수령님의 기념 글과 함께 거기만 정치군사적 대응을 준 역사적인 전투로서 항일 무장 투쟁 역사에서 빛나는 것이다.

인민 영웅 헌정에 대한 수령님의 기념 글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놓사를 할지, 어떤 민족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적 동을 짓부셔야 합니다.』

대동군 원천협동농장이 5월 25일까지 군적으로 제일 먼저 기본민족의 모내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3작업단에서는 모내기를 단 7일 동안에 해제되었다. 군적으로 보면, 논면 적이 결코 적지 않은 이 농장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우리 농장의 모내기는 5월 15일에 시작되었지만 사실 전투는 이미 전부 끝난 것입니다.』

농장의 한 일군이 한 이 달의 활동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며 그리고 모전들을 돌아보는 과정에 잘 알게 되었다.

사실이 그때였다. 농장의 모내기 전투가 세워져 있었으며 완강하게 전진되었다.

양수기와 번암기, 전동기수리 장비 원료, 3일 동안에 1,200m²

내 각질정을 제거하도록 하시

었다.

1960년대 들어와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과 전설이 심화

되는데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 옥

강화하는 것이 시대의 철학으로

구로 나서고 있었다.

당연히 당시 당인의 효율에

있던 반당반혁명종파분들은

이 탑의 인민영웅탑이므로 육

대의 일반지휘관의 형상으로 하

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통장을

보시는 것은 탑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느니, 탑의 규모가 지나

치게 크다느니 하고 합소리를

제거하고 집요하게 탐진성을

방해하여 나섰다.

인민영웅탑 건립 사업을 지도

세우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통장을 조성해 주면서

비정조의 새 역사에 뛰어놓게

행동하고 있던 그 시기에 혁명전

종파에게는

한국해방을 위한 항일

무장투쟁을 충분히 한 걸로 조직

명도 하여 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태원과 그를 고무하는 정치일

군, 소년대원과 그를 이끌어 주

는 너대원, 지휘관과 부상당한

동지에게 자기의 립의를 헤

주는 너대원 등의 모습에는 조

선인민혁명군의 관방일치와 혁

명정지애의 기풍이 강조되어

있다. 『격렬』에 형상화된 드

물리적의 신호를 울리는 지휘관, 대오의

앞장에 선 경기사수, 흥을 억제하

는 드리워진 대원, 물건나같을 부

는 나팔수 등의 모습에는 일제

침략자들을 모조리 적멸하려는

법적의 기세가 반영되어 있다.

이들이 주는 대원 등의 형상은

무장투쟁으로 대한 인민대중

의 혁명적 승리로 위한 경직당

보이려는 사상을 조형에 출적으

고 구현하고 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와

사랑방지에 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대원 등의 형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 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념 탑은

제작되었습니다.

유일한 타개책은 북남관계개선에 있다

남조선에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 통일에 대한 각계층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날을 파고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얼마전 6. 15 광동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 대전본부는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단체는 폐보수체당이 남긴 가장 큰 적폐의 하나인 《5. 24 조치》를 당장 해제하며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천연적으로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조선의 《통일뉴스》는 초봉황쟁에 의해 출현한 현 남조선당국이 민심과 민의에 따라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을 시급한 과제로 내세울 것을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 이것을 통해서도 현시기 북남관계개선제가 남조선인민들의 최대의 관심사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폐보수체당에 의해 북남관계가 바뀐 것은 남조선사회를 구성한 《안보·불안파·외교적위기·경제적 파국에 풀어온 주된 요인이다.

역사적인 6. 15 광동선언의 채택은 만세기 이상이나 꿈을 염두에 놓았던 북남 대결의 장벽이 불날의 눈瘴이처럼 녹아내리게 하였다. 광동선언의 발표 이후 불사 대결의 북남관계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판계로 고하고 전환되었다.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금의 대화와 협상이 적극 추진되고 끊어졌던 민족의 혈액과 지혜이 이어지는 민족사적 사연들이 이룩되었다.

비록 우여곡절도 없지 않았지만 북파남은 그때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힘을 합쳐 하면서 의견들을 교환하며 난문제들을 해결해나갔다. 이 나날 남북거래들은 바야흐로 대가를 통하여 그날을 환희하는데 그려보았다. 북남사이의 경제협력의 확대로 남조선의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입었다.

하지만 6. 15 시대의 이런 정의적인 성과들과 남조선인민들의 기대, 희망은 북남대결에 미친 폐보수체당의 질권으로 하여 무너져 겨우졌다.

6. 15 시대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

기면 폐보수체당은 권력의 자리에 들어 앉으면서 그 무슨 《집어버린 10년》에 대해 폐별인것은 북남관계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판이었다. 역도의 질권으로 기가 살아난 폐보수체당들은 말이 되지면 《북과 남워 무조선》이어야 한다. 《고아데대에서 외세와 아합하여 북침 학동군사연습을 펼친 나라 벌려놓는 우리를 어찌 보겠다고 긍정에서 비파소리가 날 정도로 돌아쳤지만 주변나라들로부터 면상을 받기우고 뒤통수만 두들겨 맞았다. 더우기 미국의 폐전전략에 직극 추종하는 폐보수체당의 《싸움》에서 《북과 남워》로 남조선과 주변나라들 파의 판가는 금속하고 악화되고 국제무대에서 남조선의 대외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폐보수체당국이 외세의 만류화 국제재 środow에 맞장구를 치며 제 정신없이 놓아 놓았던 것은 남조선의 수많은 기업들과 주민들을 죽음의 분수구에 더욱 바짝 몰아

간 반역적 동방이었다. 지금 남조선은 북남협력판권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원칙으로 폐보수체당의 산물이다.

희제의 대결 광녀인 박근혜도의 질권 같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평화에 대한 희망을 끝그리 알고 전쟁봉보와 불안속에 해체된 양복같은 나날이 있다.

《대북정책》의 목표로 어찌 보면 《북한파괴》로 정한 막

는 길도 《북과 남워》를 받기우고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도 《강력한 대북 협력정책》과 《북한군 군사적 대비세력》에

있고 대북전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면 박근혜체당은 우리의 정당한 자주권행사로 폐전전략을 고집하고 6. 15의 유통자진 개성공원지구를 협약에 전면폐쇄하는 반통일적 행동을 부리었다.

그리나 남장이가 제작이라고 폐의

적체당의 지랄발狂은 사실상 제손으로

제 무덤을 짓는 옥간망동이었다. 폐

의들이 그 누구에게 《벼아픈 고통》을

당이 《키 키 키》, 《독수리》, 《울지

프리미 가디언》과 함께 군사연습을 비롯한

미국과의 각종 복침전쟁연습들을 사상

최대 규모로 벌려놓고 《선제타격》과 《

참수작전》을 실행한다. 어쩐다 하

고 문주왕을 퍼 익으로써 남조선인민들

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속에 어

하루도 탐험장을 차지 못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역사적인 7. 4 광

동성명과 8. 15 광동선언, 10. 4 선

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우리 민족이

되 힘을 합쳐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과국에 처한 현 북남

관계가 시급히 개선되어 전쟁위험이 사

라지고 평화와 번영의 길이 열리기를 고

대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민심의 지향

과 요구를 끌어 모아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역사적인 7. 4 광

동성명과 8. 15 광동선언, 10. 4 선

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우리 민족이

되 힘을 합쳐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남조선에서 보수 《정권》은 6. 15 이후

박근혜도가 남장의 적폐의

하나인 《싸드》 배치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본면의 초점으로 되

고 있다.

남조선의 각계 시민사회단체

들을 비롯한 진보민주주의 생

운동과 평화당은 6. 15 이후

남조선당국은 6. 15 이후

남조선인민들은 6. 15 이후

남조선당국은 6. 15 이후

남조선인민들은 6. 15 이후

